

十干과 十二支에 關한 考察

大田大學專任講師 尹 暢 烈

1. 緒 論

“夫欲入醫學之門者 先當識天地運”(金海秀 1928: 1)라 하였고 醫學入門에 “不通五運六氣 檢盡方書 何濟(李 梴1974: 200)라고 하였으며, 또 同篇에 “儒之道博約而已矣 醫之道 運氣而已矣”(위의 책: 276)라고 하였으니 이는 運氣의 重要性을 十分 說明한 말이다 이러한 運氣學說의 理論的 背景은 陰陽五行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張介賓은 “理氣陰陽之學 實醫道開卷第一義”라고 明示하고 있다(張介賓 1977: 2).

十干과 十二支는 運氣를 具體的으로 演釋하는 符號로서 이것을 떠나서는 五運六氣를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다.

十干은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로 五運에 配合시키고(十干統運), 十二支는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로 六氣에 配合시키며(十二支配六氣) 干支가 相合하여 이루어진 甲子(干支相合)에 의해 各年の 氣候變化와 發病情況을 推演하고 있다.

이를 劉溫舒는 “天氣始於甲干 地氣始於子支者 乃聖人究乎陰陽重輕之用地 著名以彰其德 立號以表其事”라고 簡略하게 表現하고 있다(劉溫舒: 13).

이에 運氣學說의 內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干支에 對한 깊은 理解가 先行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되어 干支에 關한 內容을 研究考察하여 다

음과 같이 報告하는 바이다.

2. 本 論

2. 1. 干支에 對한 歷史的 考察

通鑑의 黃帝紀에 이르기를 “命大撓作甲子”라 하고 外紀에 “帝命大撓探五行之情 占斗剛所建始作甲子”라 하였으며(松下見林 卷 2: 2) 史略에서도 “命大撓 占斗建作甲子”(曾先之 1982: 5-6)라 하여 일반적으로 黃帝가 그의 臣下인 大撓에 命하여 大撓가 최초로 天干과 地支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徐整三五曆紀에 “天皇氏制十干 十二支之名 以定歲之所在 其歲紀以攝提爲首”라 하고 歷朝通鑑粹論에서도 “嗣後天皇氏出 名曰天靈澹泊 無爲而俗自化 始制干支之名”이라 하여 盤古氏를 이어 世上을 다스린 天皇氏가 干支를 최초로 發明했다고 記하고 있다(위의 책: 2).

歷史的으로 考察해 볼 때 대체로 十干이 먼저 發明되고 다시 十二支가 發明되었으며 다음으로 甲子(干支相合)가 發明된 것으로 추측된다. 일찌기 西紀前 1766~1122년의 殷商代에 이미 干支, 甲子가 使用되었다. 十干은 당시에 商王朝世系의 이름으로 使用되었는데 具體的으로 살펴 보면 成湯의 이름은 天乙이고 그의 아들들은 太丁, 外丙, 中壬이었다. 그리고 孫子의 이름은 太甲, 曾孫의 이름은 沃丁, 太庚이며 이후 小甲, 雍己, 太戊, 仲丁, 外壬, 河亶甲, 祖乙, 祖辛,

沃甲, 祖丁, 南庚, 湯甲, 盤庚, 小辛, 小乙, 武丁, 祖庚, 祖甲, 廩辛, 庚丁, 武乙, 太丁, 帝乙을 거쳐 마지막 紂 帝辛에 이르기까지 모두 天干으로 命名되어 있다(書經 1983 : 7).

이어서 十二支와 干支가 發明되었으므로 曆法의 發展을 따라 曆法方面에 보편적으로 응용되었다.

後漢書에서 “大撓始作甲乙以名日 謂之幹 作子丑以名月 謂之枝”라 한 것으로 보아 干支甲子の 發生은 曆法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任應秋 1982 : 13).

2. 2. 干과 支의 意味

許慎의 說文解字에 干(干) 犯也, 从一从反入(反入者 上犯之意)라 하고(段玉裁 1984 : 87), 支(支) 去竹之枝也 从手持半竹이라 記하여(위의 책 : 118) 글자가 생긴 由來를 밝히고 있다.

邵雍(諡號康節)의 皇極經世書 觀物外篇上에서 “陽數一 衍之爲十 十干之類是也. 陰數二 衍之爲十二 十二支, 十二月之類是也. (張氏衍義曰天統其全故陽數一衍之爲十 地分乎用 故陰數二 衍之爲十二 十者全數 六者用數也, 二五爲十 天之十者 一而二也. 二三爲六 地之十二者 二而四也)라 하고 또 “干者 幹之義 陽也 支者 枝之義 陰也. 干十而 支十二 是陽數中有陰, 陰數中有陽也(乙丁己辛癸 陽數中有陰也. 子寅辰午申戌 陰數中有陽也)라 하였다. 松下見林은 幹과 枝의 뜻을 天干이 陽이고, 地支가 陰인데 根據하여 “幹木之身而枝葉所依以立者 枝 附幹而旁生者 一奇一偶 陰陽之象也”라 說明하고 있다(松下見林 卷二 : 2-3).

韓東錫先生은 宇宙變化의 原理에서 幹과 枝의 意味를 확대하여 “天干이란 天氣가 運行하는 줄 거리가 되므로 天幹이라 한다. 干字는 十과 一을 合하여 만든 글자로 그 이유는 十 土위에 一水가 加해짐으로써 干(幹)이 된다는 뜻이다. 天干은 幹에 不過한 즉 그것은 事物化生의 基幹일 뿐이고 아직 行動할 만한 條件이 成熟하지 못한 것이다. 地支의 支字는 枝字와 同一하다. 天干을 幹이라 한다면 이것은 枝葉에 不過하다는 뜻이다. 反面 支字의 象을 보면 从十从又하고 있는데 이 뜻은 支字는 十土가 又의 作用(又是 再

也)을 하는 象을 取하였다는 말이다. 좀 더 仔細히 말하면 十土가 又의 作用을 할 때에 即 統一作用을 始作할 때에 萬物이 가장 茂盛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支作用의 始初인 것이다”라고 說明하고 있다(韓東錫 1976 : 93-94).

史記律書에서는 十干을 十母라 하고, 十二支를 十二子라 하여 母子 乃至 體用關係로 干支를 說明하고 있다(司馬遷 : 1252).

2. 3. 十 干

2. 3. 1. 十干紀日

任應秋는 十干의 發生이 上述한 “甲乙以名日”처럼 주로 날짜의 表記과 關聯된다고 다음과 같은 理論을 提起하고 있다.

殷商代에는 날짜를 明記할 때 十干을 使用했으므로 天干이라 稱한다(中國人을 날을 天이라 한다). 아직 달을 表記하기 以前에는 旬을 단위로 하여 날짜를 표시했는데 甲日로부터 癸日에 이르기까지 꼭 十日이 되어 一旬이 되므로 十干은 十數와 完全히 相合한다. 出土된 殷墟卜辭로부터 살펴보면 紀日은 비록 干支를 함께 말했지만 분명히 十干을 爲主로 하고 있다. 羅振玉의 殷墟書契前編三·一八·一卜辭에 이르기를

“己丑卜庚雨”

라 했는데 이 뜻은 己丑日에 점을 치니 庚寅日 即 다음날 비가 내릴 것이라는 말인데 庚字 다음에 寅字를 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七·四四卜辭에

“乙卯卜 翌丙雨”

“辛亥卜 翌壬雨 允雨”

라 했는데 역시 丙雨와 壬雨라고만 썼지 丙辰雨, 壬子雨라고 쓰지 않았다. 이로 보아 殷人들이 紀日하는데 干에 重點을 두었지 支를 重視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는 卜辭中에 자주 나타난다.

爾雅의 釋天疏에서 “甲至癸爲十日 日爲陽”이라 했는데 이는 十干紀日의 意義를 指摘하여 說明한 것이다. 그리고 漢書 食貨志의 顏師古注에 “干 猶個也”라 하여 十干은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의 10개의 숫자라고 說明하고 있다(王琦等 1982 : 300).

2. 3. 2. 十干的 具體의 概念

說文解字에

- ‘甲(甲) 東方之孟陽氣萌動 从木戴孚甲之象, 人頭空爲甲
- 乙(乙) 象春艸木冤曲而出陰氣尙彊其出乙乙也 與丿向意 乙承甲 象人頸
- 丙(丙) 位南方 萬物成炳然 陰氣初起陽氣將虧 从一入冂 一者陽也 丙承乙 象人肩
- 丁(丁) 夏時萬物皆丁實象形 丁承丙 象人心
- 戊(戊) 中宮也. 象六甲五龍相拘絞也. 戊承丁 象人脅
- 己(己) 中宮也. 象萬物辟藏詘形也. 己承戊 象人腹
- 庚(庚) 位西方 象秋時萬物庚庚有實也. 庚承己 象人臍
- 辛(辛) 秋時萬物成而訖 金剛味辛 辛痛即泣出 从一辛 辛鼻也. 辛承庚 象人股
- 壬(壬) 位北方也 陰極陽生 故陽曰龍戰于野 戰者 接也. 象人裏妊之形 承亥壬子子生之叙也. 壬與巫同意 壬承辛 象人脛脛任體也.
- 癸(癸) 冬時水土乎 可揆度也. 象水從四方流入地中之形 癸承壬 象人足

이라 하였고(段玉裁 1984 : 747-749) 史記의 律書에서는

- “甲者 言萬物剖符甲而出也
- 乙者 言萬物生軋軋也
- 丙者 言陽道著明 故曰丙
- 丁者 言萬物之丁壯也
- 庚者 言陰氣庚萬物 故曰庚
- 辛者 言萬物之辛生 故曰辛
- 壬之爲言妊也 言陽氣任養萬物于下也
- 癸之爲言揆也 言萬物可揆度 故曰揆”

라 하였다(司馬遷 : 1242-1249).

여기서 戊己二干을 缺한 것은 다만 四正四隅만 말하고 中央은 省略한 것이므로 戊己土를 言及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漢書律曆志에서는 모두 解釋하여 “出甲于甲, 奮軋於乙, 明炳於丙, 大盛于丁, 豐懋于戊, 理紀于己, 斂更于庚, 悉新于辛, 懷妊于壬, 陳揆于癸”라 하였다(班固 : 964).

北宋의 劉溫舒는 素問入式運氣論奧에서

- “甲 乃陽內而陰尙包之 草木始甲而出也
- 乙者 陽過中 然未得正方 尙乙屈也. 又云乙軋也 萬物皆解孚甲 自抽軋而出之
- 丙 乃陽上而陰下 陰內而陽外
- 丁 陽其強 適能與陰氣相丁 又云 丙 炳也 萬物炳然著見而強也
- 戊 陽土也 萬物生而出之 萬物伐而入之
- 己 陰土也 無所爲而得己者也 又云戊茂也 己起也 土行四季之末 萬物含秀者 抑屈而起也.
- 庚 乃陰于陽更而續者也.
- 辛 乃陽在下陰在上 陰于陽極於此 庚 更故也. 而辛新也.
- 庚辛皆金 金味辛 物成而後有味 又云萬物肅然 更茂實新成
- 壬 乃陽既受胎 陰壬之 乃陽生之位 壬而爲胎 與子同意
- 癸者 揆也. 天令至此 萬物閉藏 懷妊於其下 揆然萌芽”

라 하였다(劉溫舒 : 13-14).

그리고 醫學入門에서도 十干에 對한 概念을 하나하나 說明하고 있는데 모두 劉溫舒의 內容을 답습하고 있다.

以上的 內容을 考察해 보면 說文解字에서 人體의 上部인 頭部에서 足部까지 發展해 나가는 象을 特別히 說明한 것 외에는 大部分의 內容이 十干의 順序는 萬物이 發生하여 자라고, 번성하고, 衰老하고, 死亡했다가 다시 始生하는 순서를 상징하고 있다.

即 甲은 어린 싹이 겹질을 깨고 初生하는 것이요(剖符出甲)

乙은 어린 싹이 점차 떨어 자라는 것이요(奮軋于乙)

丙은 陽盛氣充하여 生長이 特히 顯著한 것이요(陽道明炳)

丁은 不斷히 씩씩하고 크게 자라는 것이요(丁壯大盛)

戊는 더욱 더 戊盛해지는 것이요(豐懋于戊)

己는 成熟의 極이요(理紀于己)

庚은 열매맺고 收斂하여 生命이 장차 여기서

부터 바꾸어지는 것이요(斂更于庚)

辛은 成熟辛殺한 뒤에 새로운 生機가 潛伏하는 것이요(悉新于辛)

壬은 陽氣가 또 새로운 生命을 姪養하는 것이요(陽氣懷姪)

癸는 第二代의 生命이 또 개시하려고 宿根이 發生을 待期하고 있는 것이다(陳揆于癸)

이러한 內容은 사람들이 萬物의 生命이 發展하는 過程을 觀察하여 十干을 配合시켰음을 說明하는 것으로 現實의인 的의를 內包한다.

2. 3. 3. 十干이 陰陽分屬

劉溫舒의 素問入式運氣論奧에 “甲丙戊庚壬爲陽 乙丁己辛癸爲陰”이라 記하고 있다(위의 책 : 14). 이에 對한 理由를 살펴보면 傷寒直格에 “凡先言者爲剛爲陽 後言者爲柔爲陰”(劉河間 1976 : 447)라 하여 陽先陰後의 法論을 說明하고 있다.

即 甲과 乙(甲乙屬木, 下述 以下同)에 있어 甲先 乙後이므로 甲은 陽이 되고, 乙은 陰이 되며 丙과 丁(同屬火)은 丙先 丁後이므로 丙陽 丁陰이 되며 戊와 己는(同屬土) 戊先 己後이므로 戊陽 己陰이 되며 庚과 辛은(同屬金) 庚先 辛後이므로 庚陽 辛陰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說明을 빌리지 않더라도 十干의 奇偶之序에 따라 陰陽이 區別되니 甲丙戊庚壬은 順서로 1, 3, 5, 7, 9에 該略하니 奇數이고 乙丁己辛癸의 順서는 2, 4, 6, 8, 10에 該當하니 偶數가 된다. 奇는 陽이고 偶는 陰이므로 周易 繫辭上에서 말하는 天一地二, 天三地四, 天五地六, 天七地八, 天九地十의 內容과 一致한다(周易傳義 : 1033). 또 周篇에서 말하는 “一陰一陽 謂之道(위의 책 : 1010)의 뜻과는 符合하는데 이는 事物이 對立과 統一의 二方面으로 規律的으로 運動하고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2. 3. 4. 十干의 兄弟行分屬

天干은 陰陽兩積 뿐만 아니라 五行으로도 分別 配合된다. 素問의 臟氣法時論中에 “肝主春其日甲乙(王注 : 壬癸爲水 北方干也)”(洪元植 1977 : 66-67)라 記하고 있다. 여기서 五季, 五方, 五臟의 概念을 五行屬性으로 統一했는데 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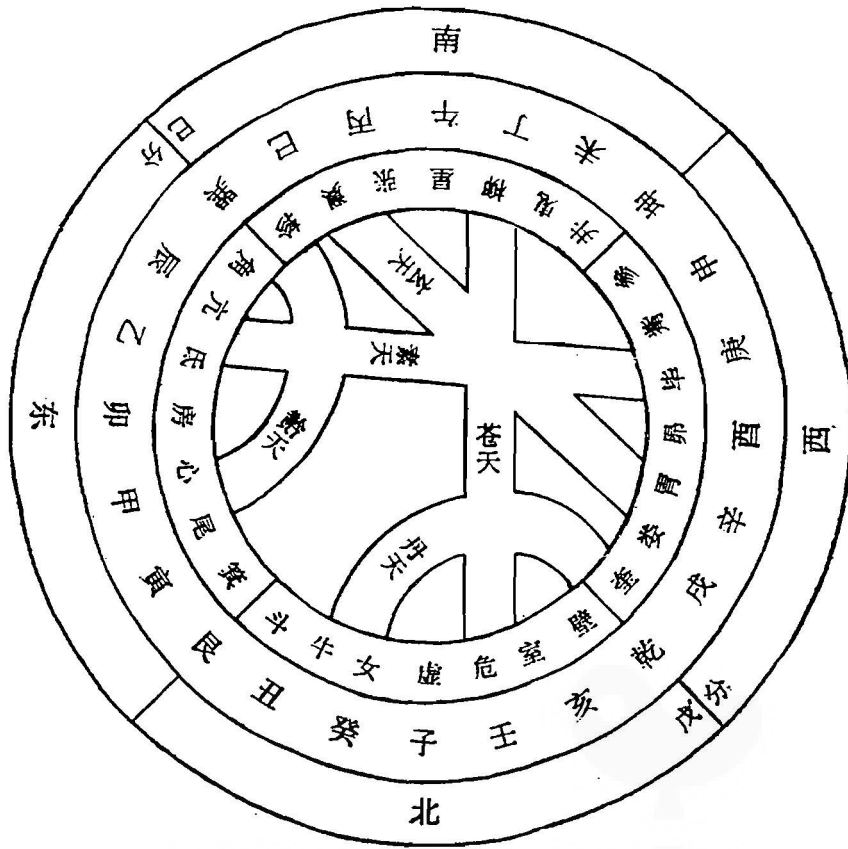
接物比類라고 부른다. 例를 들어 五行의 甲乙木은 五季의 春, 五方의 東, 五臟의 肝에서 各各木이 되며 五行의 丙丁火는 五季의 夏에서 五方의 南에서 五臟의 心에서 역시 各各火가 되며 나머지도 모두 이와 같다.

그러나 五行의 數는 다섯이고, 十干의 數는 열이므로 天干을 五行에 分屬시킬 때 매 一行마다 2개의 天干이 配屬되어야만 숫자가 일치되어 위에서 말한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가 된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것처럼 甲丙戊庚壬은 陽干이고 乙丁己辛癸는 陰干이므로 甲乙이 비록 木에 屬하지만 甲은 陽木이고, 乙은 陰木이며 丙丁이 모두 火에 屬하지만 丙은 陽火이고 丁은 陰火이며, 戊己가 모두 土에 屬하지만 戊는 陽土이고 己는 陰土이며, 庚辛이 모두 金에 屬하지만 庚은 陽金이고 辛은 陰金이며, 壬癸가 모두 水에 屬하지만 壬은 陽水이고 癸는 陰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十干이 五行에 配合되는 것을 皇極의 內篇에서는 “十干者五行有陰陽也”라 說明하고 있다(任應秋 1982 : 17).

2. 3. 5. 十干의 夫婦五行分屬

素問의 天元紀大論에 “甲己之歲 土氣統之, 乙庚之歲 金運統之 丙辛之歲 水運統之, 丁壬之歲 木運統之, 戊癸之歲 火運統之”라 하였고(洪元植 1981 : 128). 또 五運行大論에 “土主甲己, 金主乙庚, 水主丙辛, 木主丁壬, 火主戊癸”라 하여(위의 책 : 129). 甲己化土, 乙庚化金,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化火함을 밝히고 있다. 이에 對한 理論의 根據 및 機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素問의 五運行大論에 “臣覽太始天元冊文 丹天之氣 經于牛女戊分 齡天之氣 經于心尾己分 蒼天之氣 經于危室柳鬼 素天之氣 經于亢氐昴畢 玄天之氣 經于張翼婁胃 所謂 戊己分者 奎壁角軫 則天地之門戶也”라(위의 책 : 129)하여 太始에 나타난 天元紀의 秘策이 하늘에 紋을 이룰 때 丹天之氣(火氣)는 戊癸分으로 經天하고 齡天之氣(土氣)는 甲己分으로 經天하고 蒼天之氣(木氣)는 丁壬分으로 經天하고 素天之氣(金氣)는 乙庚分으로 經天하고 玄天之氣(水氣)는 丙辛分으로 經天하였음을 說明하고 있다. 이를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王琦 等 1982 : 316)



〈五氣經天化五運圖〉

以上과 같은 根原的이 說明外에 甲己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의 五運이 正月建에서 生한다는 說이 있다. 醫學入門에서는 이를 “甲己之歲 正月 建丙寅 丙火生土故爲土運, 乙庚之歲 正月 建戊寅 戊土生金故爲金運 丙辛之歲 正月 建庚寅 庚金生水故爲水運 丁壬之歲 正月 建壬寅 壬水生木故爲木運 戊癸之歲 正月 建甲寅 甲未生火故爲火運”이라 하였다 (李 挺 1974 : 220).

또 遇龍而變하여 甲己化土, 乙庚化金, 丙辛化水, 丁壬化木, 戊癸化火를 說明하는 理論이 있는데 卽 類經圖翼에서는 이를 “十二肖者 謂十二宮中 惟龍善變而屬辰位 凡十干起甲 但至辰宮 卽隨其所遇之干而與之俱變矣 如甲己干頭 起於甲子 至辰屬戊 戊爲土 此甲己之所以化土也. 乙庚干頭 起於丙子 至辰屬庚 庚爲金 此乙庚之所以化金也. 丙辛干頭 起於戊子 至辰屬壬 壬爲水 此丙辛之所以化水也. 丁壬干頭 起於庚子 至辰屬甲 甲爲木

此丁壬之所以化木也. 戊癸干頭 起於壬子 至辰屬丙 丙爲火 此戊癸之所以化火也. 此又五運之遇龍而變者也”라 하였다(張介賓 1977 : 36).

또 一說로 剛柔의 陰陽이 結婚하여 中을 이룰 때 造化가 생김을 根據하여 “甲剛木 兌己柔土爲夫婦而成土運, 乙柔木 嫁庚剛金而成金運, 丁陰火 配壬陽水而成木運, 丙陽火 聚辛柔金而成水運, 戊陽土 聚癸陰水而成火運”이라 하였다(위의 책 : 36).

이는 五運이 對化作用을 통해 夫婦를 이루어 自律的으로 變化하는 理論과 一脈相通하는 점이 있다. 다음에 圖表를 그려놓고 그 概要단 說明해 보기로 하겠다.

對化作用이란 五運이 自律的인 運動을 할 때 本末間에서 기운을 던져 서로 待對的인 牽制속에서 動靜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圖表에서 甲에서 己에까지 이르는 運을 甲己運 또는 甲運이라 하며 甲運이 다하면 己運



凡 例

1. ○內의 甲乙丙丁 等은 方位
2. 五運은 右旋하면서 運行
3. 周圍總數 360度
4. 甲乙間의 點線 等은 對化의 表示

〈五運의 對化圖〉

이 계승하므로 己甲 사이에 일어나는 運을 이것과는 反對로 己甲運이라 한다. 이 때 甲己運이 運行하는 180度 사이는 모든 變化가 甲運의 支配下에 놓이며 己甲運이 運行하는 180度 사이는 모든 變化가 己運에 從屬된다. 이것은 甲己運이나 己甲運의 경우 뿐만 아니라 乙庚(庚乙), 丙辛(辛丙), 丁壬(壬丁), 戊癸(癸戊) 등의 運이 運行하는 경우도 同一하다. 그러면 土運(甲運과 己運)이 어떻게 對化作用을 하는가? 甲은 五行으로 보면 三木(甲乙이 모두 木이나 甲은 陽木, 乙은 陰木이므로 甲은 三木이 되고, 乙은 八木이 된다. 以下同)이다. 그러나 甲이란 三木(陽木)이 어떻게 甲土라는 전혀 이질적인 性格으로 變하는가? 이를 설명하려면 于先 己甲運의 變化過程부터 說明하여야 한다. 己는 土土인데 己土以前까지는 事物의 生長過程이었다. 그러나 己土에 이르게 되면 庚辛壬癸를 거치는 동안에 事物은 完全히 成熟하여서 坎爲水로 歸結된다. 이것이 바로 一水인즉 事物은 여기에서 生長의 뜻만 內包한채 때만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己甲運動을 하는 사이에 己土運은 점

점 變質되어서 甲에 이른다. 그런데 이 때에 甲은 己에서 보면 己의 終點인 것인데 그 終點이 바로 甲土運을 成立시켰던 것이다.

甲土運의 變化過程을 살펴 볼 때 坎水內部에 있던 一陽이 發生할 때에 甲土의 擴張性에 의하여 外部의 堅質을 緩和하여서 一陽脫出의 援助를 하여 준다. 그런데 甲은 五行의 木인즉 木(甲)은 湧出하려는 野心이 濃厚하다. 뿐만 아니라 甲土와는 性質이 정반대인데 그러한 異質의 木이 어떻게 甲土로 變化할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그림의 反對方向에 있는 己土가 自己의 土土의 性質로서 甲木에 半은 土, 半은 木으로 化合하여서 甲五土로 化하게 하는 것이므로 甲土運이 이와 같이 變化에 依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乙金運이 繼承하는데 乙은 본래 八木으로 이것이 變質되어 乙金運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甲木의 上升作用은 甲土로 變化되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다시 形體있는 나무로 되려면 乙金運의 壓力을 받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乙金運이 必要하게 되는데 乙木

이 어떻게 乙金으로 變化하는가? 이는 反對方向에 있는 庚金이 乙木에 對化作用을 加함으로써 乙木의 半은 木이고 半은 金인 性質로 變化하게 된다. 乙金運은 이와 같이 成立하여서 木의 形을 創造하는 것이다(韓東錫 1976: 76-78). 다음은 이어서 丙水運, 丁木運 等等을 論해야 하지만 거의 같은 理論으로 說明되므로 여기서 略하고자 한다.

2. 4. 十二支

2. 4. 1. 十二支

殷人들은 太陰曆을 使用했으므로 그들의 紀月하는 方法은 달이 圓缺하는 것이 準則이었다. 그리하여 매월을 30일로 나누었으나 달이 한번 轉다가 기우는데 30일이 좀 안되므로 大建과 小建을 나누어서 大建은 30일로 하고 小建은 29일로 하였다. 一年은 보통 12개월로 나누었지만 太陰曆과 一致하지 않았으므로 閏月을 두어 誤差를 해소하였다. 殷人이 紀月한 順序는 一, 二, 三, 四……, 十一, 十二의 順序로 排列되었다. 後에 天文과 曆法이 계속 發展됨에 따라 그들은 一歲四時之候를 모두 十二辰으로 統一하였다. 이른바 十二辰은 斗綱이 가리키는 곳으로 即 節氣가 있는 곳이니 正月은 寅, 二月은 卯, 三月은 辰, 四月은 巳, 五月은 午, 六月은 未, 七月은 申, 八月은 酉, 九月은 戌, 十月은 亥, 十一月은 子, 十二月은 丑를 各各 가리키니 月建이라 부르는 것이다. 斗綱은 北斗七星의 一, 五, 七의 三星을 지적하는 말로 第1星을 魁星, 第五星을 衡星, 第七星을 杓星이라 한다. 예를 들어 正月建寅은 초저녁에는 杓가 寅을 가리키고 夜半에는 衡이 寅을 가리키고 平旦에는 魁가 寅을 가리키니 나머지 十一個月의 月建을 考察해도 모두 이와 同一하다. 그러므로 爾雅釋天의 郝懿行疏에서 말하기를 “寅至丑爲十二辰 辰爲陰”이라 했는데 辰爲陰은 月建을 指摘해서 한 말로 建은 健으로 訓하니 周易에서 말한 天行健의 뜻이요 辰은 時로 訓하니 春夏秋冬이 四時가 되고 每一時가 三個月 即 孟·仲·季가 된다. 十二支를 또 歲陰이라고도 하는데 月은 陰이기 때문이다. 이를 爾雅 釋天에서는 “歲陰者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十二支是也”라 하였다(任應秋 1982: 19).

위의 順序와 달리 十二支로 月建하는 順序는 寅에서 始作하여 丑에서 끝나는데 이것을 類經 圖翼 氣數統論에서는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朱子曰 冬至前 四十五日屬今年 後四十五日屬明年而冬至之日 正當斗柄建于子中 是爲一歲之首尾也. 故十一月建在子 一陽卦復 蓋以建子之月 陽氣雖始于黃種 然猶潛伏地下 未見發生之功 及其歷丑轉寅 三陽始備 于是和風至而萬物生 萌芽動而蟄藏振 遍滿寰區 無非生意 故陽雖始于子 而春必起于寅 是以寅卯辰爲春 巳午未爲夏 申酉戌爲秋 亥子丑爲冬 而各分其孟仲季焉”(張介綱 1974: 29).

即 十二支의 順序를 子로 始作하는 것은 陽氣의 始發을 상징하는 것이요 月建을 寅으로 始作하는 것은 陽氣의 滿足을 상징하는 것이다.

2. 4. 2. 十二支의 具體의 概念

說文解字를 보면

子(子) 十一月 陽氣動萬物滋 人曰 爲孺 象形 丑(丑) 紐也. 十二月 萬物動用事 象手之形 寅(寅) 嶺也(注當作演) 正月 陽氣動 去黃泉 欲上出陰尙強也. 象宀不達嶺(當作演) 寅於下也.

卯(卯) 冒也. 二月 萬物冒地而出 象開門之形 故二月爲天門.

辰(辰) 震也. 三月 陽氣動 靄電振民農時也. 物皆生 从乙匕 匕象芒達 尸聲 辰房星 天時也.

巳(巳) 巳也. 四月 陽氣已出 陰氣已藏 萬物見 成文彰 故巳爲它象.

午(午) 悟也. 五月 陰氣悟 陽冒地而出也. 象形 此與矢同意.

未(未) 味也. 六月 滋味也 五行木老於未 象 木重枝葉也.

申(申) 神也. 七月 陰氣成體自田束 从臼自持 也. 呂鍾時聽事田且政也.

酉(酉) 就也. 八月 黍成可爲酎酒 象古文酉之 形也.

戌(戌) 滅也. 九月 陽氣微萬物臯成陽下入地 也 五行土生於戌盛於戌 从戌一 一亦

聲.

亥(亥) 亥也. 十月 微陽起接盛陰 从二二古文上字也.

一人男一人女也 从L象褻子咳之形也. 春秋傳曰亥有二首六身”

이라 하였고(段玉裁 1684 : 749-759), 史記의 律書에서는 十二支의 順序를 解釋하여

“子者 滋也 滋者 言萬物 滋于下也.

丑者 紐也 言陽氣在上未降 萬物厄紐 未敢出也.

寅 言萬物始生 蟻然也 故曰寅

卯之爲言茂也 言萬物茂也.

辰者 言萬物之娠也.

巳者 言陽氣之巳盡也.

午者 陰陽交 故曰午

未者 言萬物皆成 有滋味也.

申者 言陰用事 申賊萬物 故曰申

酉者 萬物之老也 故曰酉

戌者 言萬物盡滅 故曰戌

亥者 該也 言陽氣藏于下 故曰該也”라 하였으며(司馬遷 : 1242-1249)

漢書 律曆志에서는

“孳萌于子, 紐牙于丑, 引達于寅, 冒茹于卯, 振美于辰, 巳盛于巳 罅布于午 味蕝于未, 申堅于申. 留執于酉. 畢入于戌, 該闕于亥 故陰陽之施化 萬物之終始”라 하였다(班固 : 964).

劉溫舒는

“子者 北方寒水之位 而一陽肇生之始 故陰極則陽生 壬而爲胎 子之爲子 此十一月之辰也至丑陰尙執而細之 又丑陰也助也 謂十二月終始之際以結紐爲名焉.

寅 正月也. 陽巳在上 陰巳在下 人始見之始 故律管飛灰以候之 可以述事之始也 又寅 寅也 律也 謂物之津塗

卯者 曰升之時也 又卯 茂也 言二月陽氣盛而孳茂

辰者 陽巳過半 三月之時 物盡震而長 又謂辰言震也

巳者 四月 正陽而無陰也. 自子至巳陽之位 陽於是當 又巳起也 物畢盡而起

午者 陽尙未屈 陰始生而爲主 又云午長也 大

也 物至五月皆滿長大矣

未 六月 木巳重而成矣 又云未 味也 物盛而有味 與辛同意

申者 七月之辰 申陽所爲而已陰至於申則 上下通而 人始見白露 葉落 乃其候也. 可以述陰事以成之 又云申 身也 言物體皆成

酉者 日入之時 乃陰正中八月也 又云酉縮也 萬物皆縮縮收斂

九月戌陽未既也 然不用事潛藏於戌土中 乃乾位戌爲天門故也 又云戌滅也 萬物皆衰滅矣.

十月亥 純陰也 又亥劫也 言陰氣劫殺萬物,, 이라 하였다(劉溫舒 : 13-14).

여기서 十二支의 차례는 十干과 同一한 뜻이 있고 特히 事物이 매월마다 發展하여 由微而盛하며 由盛而衰하여 反復적으로 變化 發展해 가는 過程을 설명하고 있다.

即 十一月은 冬至에 一陽이 始生하여 生命이 땅속에 潛藏했다가 차차 滋生하는 機轉이 있으므로(孳萌于子) 子로써 月建을 삼았고, 十二月은 陰氣가 다하고 陽氣가 生하여 새로운 生命이 이미 陰紐를 풀고 땅에서 나오므로(紐牙于丑)

丑으로써 月建을 삼았고, 正月은 孟春으로 三陽이 泰卦를 이루니 生機가 이미 꿈틀거리며 活潑하니(引達于寅) 寅으로써 月建을 삼았고, 二月은 仲春으로 陽氣가 方盛하여 生物의 成長이 점차 茂盛하게 자라므로(卯言茂也) 卯로써 月建을 삼았고, 三月은 季春으로 春陽이 振動하여 生物이 더욱 茂盛하게 자라므로(振美于辰) 辰으로써 月建을 삼았고, 四月은 陽氣가 더욱더 盛壯하므로(巳盛于巳) 巳로써 月建을 삼았고, 五月은 陽盛陰生하여 生物의 成長이 萼繁葉布(陰陽交萼布)하므로 午로써 月建을 삼았고, 六月은 生物이 盛長하여 열매 맺고 成熟하므로(物成有味) 未로써 月建을 삼았고, 七月은 秋涼이 初至하여 生物이 成熟되고 점차 收斂되므로(申賊萬物) 申으로써 月建을 삼았고, 八月은 陰氣가 더욱 盛하고 陽氣가 더욱 衰하여 生物이 衰老(萬物之老)하므로 酉로써 月建을 삼았고, 九月은 季秋로 生物이 모두 收斂되므로(萬物盡滅) 戌로써 月建을 삼았고, 十月은 陰氣가 점차 外部에까지 盛해지고 陽氣가 內部에 潛藏하므로(陽氣藏于

下) 亥로써 月建을 삼은 것이다.

2. 4. 3. 十二支의 陰陽分屬

十二支의 陰陽分屬은 十干에서 이미 말한 것처럼 陰陽奇偶의 원리에 따른다. 即 一, 三, 五, 七, 九, 十一의 位置에 순서하거나 一, 三, 五, 七, 九, 十一의 六個月은 모두 奇數로 陽에 屬하여 子, 寅, 辰, 午, 申, 戌의 六支는 모두 陽支가 된다. 반대로 二, 四, 六, 八, 十, 十二에 位置하는 地支나 月建은 모두 偶數로 陰에 屬하여 丑, 卯, 巳, 未, 酉, 亥의 六支는 모두 陰支가 된다.

2. 4. 4. 十二支의 方位五行分屬

古人들이 十二支를 그들이 觀察한 一歲四時, 十二月二十四節氣의 陰陽五行 關係에 配合하여 氣候의 變化規律을 分析했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言及한 바가 있는데 이는 類經圖翼의 五行統論에서 말한 “十二支以應月 地之五行也 子陽亥陰曰水 午陽巳陰曰火 寅陽卯陰曰木 申陽酉陰曰金 辰戌陽丑未陰曰土”(張介賓 1977 : 17)나 醫學入門의 運氣條에서 말하는 “又以地支循環次序言之 寅卯屬春木也, 巳午屬夏火也, 辰戌丑未屬四季土也. 申酉屬秋金也, 亥子屬冬水也”(李梴 1974 : 221-224)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即 이것을 한번 더 풀어서 說明하면

亥子月은 一陰一陽으로 冬月의 孟·仲에 해당되고 北方寒水之氣가 行令하는 時候이므로 巳午는 五行에 있어 모두 火에 屬하며, 寅卯月은 一陰一陽으로 春月의 孟·仲에 해당되고 東方風木之氣가 行令하는 時候이므로 寅卯는 五行에 있어 모두 木에 屬하며, 申酉月은 一陰一陽으로 秋月의 孟·仲에 해당되고 西方燥金之氣가 行令하는 時候이므로 申酉는 五行에 있어 모두 金에 屬한다.

辰은 季春三月이 되고 未는 六月季夏가 되고

戌은 九月季秋가 되고 丑은 十二月季冬이 되니 이 四個月은 모두 中央土濕之氣가 四時에 寄王하는 것이므로 辰戌丑未는 五行에 있어 모두 土에 屬한다. 素問의 太陰陽明論에서 “脾者 土也 治中央 當以四時長四歲 各以十八日寄治”라 했는데(洪元植 1981 : 62) 이는 三月(辰), 六月(未), 九月(戌), 十二月(丑)의 四個月의 立春, 立夏, 立秋, 立冬前의 十八日은 모두 中央土가 寄王하는 時候라는 意味이다. 1年 360일을 四季節로 나누면 90일이 되고 이 90일 중에서 各各 18일씩을 除外하면 各 季節이 72일이 되고 土王之日도 72일이 되므로 이렇게 五分하는 것도 360일로 1년을 이루는 原則에 워배되지 않는다.

2. 4. 5. 十二支의 六氣三陰三陽分屬

素問의 天元紀大論에 “子午之歲 上見少陰, 丑未之歲 上見太陰, 寅申之歲 上見少陽, 卯酉之歲 上見陽明, 辰戌之歲 上見太陽, 巳亥之歲 上見厥陰, 少陰所謂標也 厥陰所謂終也 厥陰之上 風氣主之, 少陰之上 火氣主之, 太陰之上 濕氣主之, 少陽之上 相火主之, 陽明之上 燥氣主之, 太陽之上 寒氣主之”라 하였고(위의 책 : 128) 五運行大論에서는 “子午之上 少陰主之, 丑未之上 太陰主之, 寅申之上 少陽主之, 卯酉之上 陽明主之 辰戌之上 太陽主之, 巳亥之上 厥陰主之”라 하였다(위의 책 : 129).

이는 六氣와 三陰三陽에 地支를 配合하여 紀年의 地支에 根據하여 氣候의 變化와 人體에 대한 影響을 研究하는 標準이 되는 것이다. 위에서 上이라 한 것은 上位 即 司天之位를 말하는 것으로 子午年에는 少陰君火가 司天之位를 主管한다는 뜻이다. 十二支에 六氣와 三陰三陽을 配合하여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程士德 1982 : 548).

〈十二支配六氣表〉

地支	子 午	丑 未	寅 申	卯 酉	辰 戌	巳 亥
三陰三陽	少 陰	太 陰	少 陽	陽 明	太 陽	厥 陰
六 氣	君 火	濕 土	相 火	燥 金	寒 水	風 木

여기서의 配合規律은 十二地支를 五行에 配合하여 五方に 分屬한 方法과 같지 않은데 이를 古人은 正化, 對化의 問題로 說明하고 있다.

正化는 六氣가 居한 正位에서 化한 氣이고 對化는 正位와 對沖된 位에서 化한 氣이다. 新校正에서는 “詳午未寅酉戌亥之歲爲正化 正司化令之實, 子丑申卯辰巳之歲爲對化 對司化令之虛此其大法也”라 하였다. 玄珠密語에서는 이에 對해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即 玄珠密語의 天元定化紀篇을 보면 “厥陰所以司于巳亥者 何也 謂厥陰木也 木生于亥 故正司于亥也 對司于巳也 雖有卯爲正位木之分 謂厥明金對化之所 以從所生而順于司也. 少陰所以司于子午者何也 謂少陰爲君火 君火尊位 所以正得南方離位也 即正化于午 對化于子也 太陰所以司于丑未者何也. 謂太陽爲土也 土主中宮 寄卦于坤 坤位西南 居未分也 即正化于未 對化于丑也. 少陽所以司于寅申者何也. 謂少陽爲相火之位 卑于君火也. 雖有午位 君火以居之 即火生于寅也. 故正司于寅 對化于申也. 陽明所以司于卯酉者何也. 謂陽明爲金 酉爲西方金位 即正司于酉 對化于卯也. 太陽所以司于辰戌者何也 謂太陽爲水 水雖有于子位 謂君火對化也 水乃復于土中 即六戌在天門 即戌是也. 六己在地戶 即辰是也. 故水歸土用 正司于戌 對化于辰也.”라 하였다 (黃帝內經素問校釋 1982 : 859-860). 이러한 正化對化의 說은 後世의 劉溫舒, 李 梴, 張介賓 등이 모두 따르고 있다.

2. 5. 甲 子(干支相合)

2. 5. 1. 干支相合의 規律

天干과 地支를 配合한 것을 甲子라 부른다. 天干은 上에 있고 地支는 下에 있으므로 干支를 順序에 따라 차례로 配合하면 自然的으로 天干의 甲과 地支의 子가 제일 앞에 나오게 된다. 이것을 素問의 六微旨大論에서는 “天氣始于甲 地氣始于子 子甲相合 名曰歲立 謹候其始 氣可與期”라 말하고 있다(洪元植 1981 : 134). 이 뜻은 天氣를 推算하는 것은 十干인데 十干의 차례는 甲으로서 始作하고 地支를 推算하는 것은 十二支인데 十二支의 차례는 子로써 始作하므로 干支의 첫글자인 甲과 子를 配合함으로써 始作하여 十干의 末尾인 癸字와 十二支의 末尾인 亥字를 서로 配合하는데까지 이르면 꼭 60個가 되어 甲子가 一周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甲子의 차례를 세운 다음에야 歲氣를 推算하는 方法도 따라서 建立되니 그러므로 候時占氣하는 것은 모두 甲子의 推算을 통해서 豫期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 干支配合의 規律은 甲丙庚壬의 五陽 干은 子寅辰午申戌의 六陽支와 配合되고 乙丁巳辛癸의 五陰 干은 丑卯巳未酉亥의 六陰支와 配合되는데 天干은 10個이므로 甲子가 一周하는데 各各 6回 反復하고 地支는 12個이므로 甲子가 1周하는데 各各 5回 反復하여 60甲子를 마치게 된다. 이 順序를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甲 子 表〉

天	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地	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天	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地	支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天	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地	支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巳
天	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地	支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天	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地	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天	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地	支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같다.

素問의 六節藏象論에 “天有十日 日六竟而周甲 甲六復而終歲 三百六十日法也”라 했는데(위의 책 : 25) 여기서의 十日是 바로 十干을 지적해서 한 말이다. 왜냐하면 十干은 원래 紀日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十天干은 60甲子 속에서 6回 反復하고 있으므로 日六竟而周甲이라 한 것이다. 여기서 竟은 盡也의 뜻이다. 一年은 본래 365일인데 5일은 各節氣에서 남은 나머지 數를 습한데서 유대하므로 옛사람들은 흔히 言及하지 않고 다만 $60 \times 6 = 360$ 일의 일반적인 숫자만 言及하고 있다. 그러나 天干의 六竟만으로는 甲子가 구성되지 않고 반드시 地支의 五周와 配合되어야만 行해지게 된다. 그리하여 素問의 天元紀大論에서는 “天以六爲節 地以五爲制 周天氣者六期爲一備, 終地氣者五歲爲一周, 五六相合 而七百二十氣爲一紀 凡三十歲 千四百四十氣 凡六十歲 而爲一周 不及太過 斯皆見矣”라 하였다(위의 책 : 128).

十干은 陽으로 天을 主하고 十二支는 陰으로 地를 主한다. 十天干이 6回 反復하는 것을 “天以六爲節” 또는 “周天氣者六”이라 부르고, 十二地支가 5回 反復하는 것을 “地以五爲制” 또는 “終地紀者五”라 부른다. 天干이 6回 돌고 地支가 5回 도는 것을 五六相合이라 하는데 이것은 干支가 甲子를 構成하는 기본 規律이다. 五六相合에 依해 60甲子를 이룸에 있어 前三十年은 720節氣(1년이 24節氣이므로 30년에 720節氣가 된다)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一紀 또는 一世라 부르고, 後半 30년의 節氣까지를 습하여 一周甲子 六十年이 完成된다. 이 60년을 陰陽의 干支가 配合된 甲子로부터 推衍計算하면 五運六氣의 太過不及은 모두 이에 依하여 알 수가 있다. 왜냐하면 甲子の 天干은 주로 五運의 盛衰를 主管하기 때문이다. 五運行大論에서 말하는 “五氣主歲 首甲定運”은 바로 이 뜻이다. 甲子の 地支는 주로 六氣의 變化를 주관하므로 六元正氣大論에서 말하는 “六氣變化 勝復淫治”의 理致는 地支에 의해서 推求할 수 있다. 即五運六氣의 研究는 干支와 甲子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 類經圖翼의 氣數統論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舉一歲之氣 及干支之數而言 從天用干 則五日一候 五陰五陽 而天之所以有十干 甲戌以陽變 己癸以陰變 五之變也 從地用支 則六日一變 六剛六柔而地之所以有十二支 子巳以陽變 午亥以陰變六之變也 十干以應日 十二支以應月 故一年之月兩其六 一月之日六其五 一年之氣 四其氣 一氣之候三其五 總計一年之數 三十六甲而周以天之五 三十子而周以地之六 故爲十二月 二十四氣七十二候 三百六十日 四千三百二十辰 十二萬九千六百分 何非五六之所化” (張介賓 1977 : 32).

여기서 十干 十二支를 五六相合하여 甲子를 이루는 것은 古代曆法의 한 計算法임을 알 수 있다.

2. 5. 2. 甲子紀年에 關한 歷史的 考察

甲子를 使用하여 紀日·紀月·紀時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方法이라는 것을 앞에서 이미 기술했는데 甲骨文字를 通해 이것이 殷商때부터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甲骨學商史編에 “民國十八年秋季 容庚曾爲 燕京大學購得一枚 列六十 甲子甚全 骨版劇治甚平滑 背面又未 經金贊鑿 此版既非卜用 可決爲專著旨曆之用了”(任應秋 1982 : 27)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殷代에 紀日하고 紀旬하는데 썼던 大旬周期 甲子表임이 조금도의 심할 바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당시에 이처럼 高度의 甲子表를 編制할 수 있을까? 이는 그 당시의 曆法과 不可分의 關係가 있는데 殷商代에는 農業이 重視되었으므로 自然 當時의 知識과 教育은 天文曆數의 研究에 集中되어 農業上의 正確한 時間觀念의 把握이 特히 發達하였다. 即 例를 들어 어느 때 씨를 뿌려야 하고 어느 때 거두어야 하며 또는 어느 때 어떠한 것을 심고 가꾸어야 하는가 等等은 모두 때에 맞추어 施行해야 했으므로 殷人들은 이것을 탐구하여 紀日·紀旬·紀月·紀年하는 曆法을 創出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分明히 밝혀야 할 것은 殷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紀年하는 方法은 알고 있었지만 甲子로 紀年하지 않았고 또 紀年의 名稱도 統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胡厚宣의 殷代年歲稱謂考에서는 이를 “殷代自盤庚遷鄴以後 早

期稱年爲年 爲歲 爲春 爲秋 至晚期 始稱爲祀 亦以事紀年”(위의 책 : 27)이라 밝히고 있다. 여기서 春 또는 秋로 紀年한 것은 春에는 五穀이 始生하고 秋에는 五穀이 成熟하므로 五穀의 始生과 成熟으로 紀年하는 方便으로 삼은 것이며 祀라고 한 것은 一年의 祭祀가 끝났음을 取한 것이다.

요컨대 東漢以前에는 甲子로 紀年하는 方法이 없었고 干支를 結合하여 紀年에 응용한 것은 漢의 建武·光武帝 以後의 일이다.

顧炎午의 日知錄에서는 여기에 對해서 “爾雅疏曰 甲至癸爲十日 日爲陽 寅至丑爲十二辰 辰爲陰 此二十二名 古人用以紀日 不以紀歲 歲則自有 闕逢至昭陽十名 爲歲陽 攝提格至赤奮 若十二名 爲歲名 後人謂甲子歲 癸亥歲 非古也. 自漢以前 初不假借 史記曆書 太初元年年名焉(即 闕字)逢 攝提格 月名畢聚 日得甲子 初半朔旦冬至 其辨析 如此”라 하였다(위의 책 : 28). 漢以前的 紀年은 基本的으로 爾雅 釋天에서 말한

“太歲在甲曰闕逢 在乙曰旃蒙 在丙曰柔兆 在丁曰強圉 在戊曰著雍 在己曰屠維 在庚曰上章 在辛曰重光 在壬曰玄默 在癸曰昭陽 歲陽 太歲在寅曰攝提格 在卯曰闕闕 在辰曰執徐 在巳曰大荒落 在午曰敦艮 在未曰協洽 在申曰灘灘 在酉曰作噩 在戌曰闕茂 在亥曰大淵獻 在子曰困敦 在丑曰赤奮若 歲名”

이라 한 것이 使用되었다(爾雅郭注 1970 : 6-7).

여기서 十干에 해당하는 것은 歲陽이라 했고 十二支에 해당하는 것은 歲名이라 했으며 또 闕逢에서 昭陽까지의 十名을 歲陽이라 불렀고 攝提格에서 赤奮若까지 十二名을 歲名이라 불렀다. 歲陽과 歲名을 차례로 配合하면 一年의 名稱이 된다. 예를 들어 歲陽의 甲은 闕逢이고 歲名의 子는 困敦이므로 闕逢困敦年은 甲子年이 된다. 또 歲陽의 乙은 旃蒙이고 歲名의 丑은 赤奮若이므로 旃蒙赤奮若是 乙丑年이 된다. 기타

〈歲 陽 表〉

十 干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爾 雅 釋 天	闕逢	旃蒙	柔兆	強圉	著雍	屠維	上章	重光	玄默	昭陽
史 記 曆 書	焉逢	端蒙	游兆	強梧	徒維	祝犁	商橫	昭陽	橫艾	尙章

의 歲陽과 歲名도 차례대로 配合하던 역시 甲子로 紀年하는 것과 같아지는데 여기서는 五六節制의 의미는 없고 다만 陰陽配合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呂氏春秋季冬紀 序意에 “維秦八年 歲在涪灘”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歲名이 가장 먼저 使用된 例로 涪灘은 申年으로 여기서는 庚申年일 可能性이 크므로 마땅히 上章涪灘으로 해야 한다.

다음은 歲陽·歲名의 意味를 把握해 보고자 한다.

南宋때의 洪邁가 지은 容齋隨筆에서는

“歲陽歲名之說 始于爾雅 自後惟太史公曆書用之 而或有不同 始闕逢爲焉逢 旃蒙爲端蒙 柔兆爲游兆 強圉作強梧 著雍作徒維 維維作祝犁 上章作商橫 重光作昭陽 玄默作橫艾 昭陽作尙章 此乃年紀久遠 傳寫或訛 不必深辯 郭景純注釋云 自歲陽至月名 皆所未詳通 故缺而不論 資治通鑑專取歲陽歲名以冠年 不可曉解 韓退之詩 歲在淵獻牽牛中 王介甫字說言強 自余亦無說”

이라 하였다(任應秋 1982 : 29).

歲陽, 歲名에 관한 解釋은 後世에 비록 하나 하나 說明한 것이 있으나 거의가 牽強附會한 것들이다. 여기에 關해 爾雅疏에서는 “李巡孫炎雖各有其說 皆構虛不經 疑事無質”이라 했고 梁任公의 國文言原解에서도 “此等名稱 雖以郭璞之博聞多識 猶云字義未詳 注中缺而不論 而其音讀 亦往往有異同 以史記較之 此皆以音近而生異同者 然則此二十二支文 殆爲衍聲而非衍形也”라 설명하고 있다(위의 책 : 29).

郭景純에서 梁任公까지의 時間차이가 1600여 년인데 그 사이에 歲名의 뜻을 分明하게 解釋한 사람이 없고 天官書와 爾雅의 差異를 比較해 보건대 梁任公이 歲陽歲名의 名稱이 “衍聲而非衍形”이라고 한 것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參考로 歲陽과 歲名을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

〈歲 名 表〉

十二支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爾雅釋天	困敦	赤奮若	攝提格	單閼	執徐	大荒落	敦牂	協洽	涇灘	作噩	閼支	大淵獻
史記曆書	困敦	赤奮若	攝提格	單閼	執徐	大荒落	敦牂	協洽	涇灘	作噩	淹支	大淵獻

과 같다.

3. 結 論

十干, 十二支에 關하여 考察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干支는 五運六氣의 研究에 必須不可缺의 符號로 著名以彰其德 立號以表其事하기 위해 設정되었다.

2. 干支는 黃帝가 大撓에 命하여 최초로 만들어졌다 하며 歷史的으로 殷代부터 使用했던 기록이 나타난다.

3. 干은 陽, 支는 陰으로 干은 天道의 變化를 支는 地道의 變化를 把握하는데 使用되었다.

4. 古代에 干은 特히 紀日하는데 支는 紀月하는데 使用되었다.

5. 十干의 順序는 萬物이 發生, 成長, 繁盛, 衰老, 死亡했다가 다시 始生하는 순서를 상징하고 있다.

6. 十干中 甲丙戊庚壬은 陽에 配屬되고, 乙丁己辛癸는 陰에 配屬된다.

7. 十干의 兄弟五行分屬은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이다.

8. 十干의 夫婦五行分屬은 甲己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이다.

9. 十二支의 順序는 매월을 쫓아 發展하여 由微而盛하며 由盛而衰하여 反復的으로 變化해 가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다.

10. 十二支中 子寅辰午申戌은 陽에 配屬되고, 丑卯巳未酉亥는 陰에 配屬된다.

11. 十二支의 方位五行分屬은 寅卯木, 巳午

火, 辰戌丑未土, 申酉金, 亥子水이다.

12. 十二支의 六氣三陰三陽分屬은 子午少陰君火, 丑未太陰濕土, 寅申少陽相火, 酉陽明燥金, 辰戌太陽寒水이다.

13. 干支相合의 規律은 陽干은 陽支, 陰干은 陰支만 取하며 一周 60回 反復하는데 天干은 六回, 地支는 5回 反復한다.

14. 運氣學說의 研究는 干支가 相合된 以後라야 具體的으로 把握될 수 있다.

15. 甲子紀年은 後漢光武帝이후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以前은 일정하기는 않지만 古歲陽 歲名이 使用되었다.

16. 古歲陽과 歲名은 지금까지 意味를 알 수 없으며 衍聲한 것으로 추측된다.

<參考文獻>

金海秀(1928) 圖解運氣學講義錄: 朝鮮基督敎彰文社, 서울.
 段玉裁(1984) 說文解字: 注黎明文化事業公司, 臺北.
 班固(1983) 漢書: 鼎文書局, 臺北.
 司馬遷 史記: 宏業書局, 臺北.
 書經(1982): 二以會刊.
 松下見林: 運氣論奧疏鈔.
 王琦外(1976) 黃帝內經素問今釋: 成輔社影印, 서울.
 劉溫舒 運氣要訣: 大韓運氣學會編.
 劉河間 劉河間三六書: 成輔社, 서울.
 爾雅郭注(1979) 中華書局印行, 臺灣.
 任應秋(1982) 運氣學說: 上海科技出版街.
 李 挺(1974) 國譯編注醫學入門: 崇文社, 서울.
 張介賓(1977) 類經圖翼: 書苑堂, 서울.
 程士德(1982) 素問注釋匯粹: 人民衛生出版社, 中共.
 曾先之(1982) 史略諺解: 世昌書館, 서울.
 韓東錫(1976) 宇宙變化의 原理: 杏林社, 서울.
 洪元植(1981) 精校黃帝內經: 東洋醫學研究院, 서울.
 洪元植(1977) 黃帝內經 素問解釋: 高文社, 서울.
 黃帝內經素問校釋(1982)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校釋: 人民衛生, 中共.